

34. 가스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천식 등

성별	남	나이	56세	직종	경비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박○○는 2000년 7월 K산업(주)에 근무하다가 야근 후인 2005년 3월 14일 오전 호흡곤란으로 괴로워하는 상태로 발견되어 후송되었다. 천식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응급실 도착 당시 심폐정지 상태로 심박동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이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2000년 7월 1일 K산업(주)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출입자 확인 및 통제, 가스용기의 입출고 확인, 차량의 계근 등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K산업(주)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39세 때부터 다른 업체의 자재과나 경비실에서 근무하였다. K산업(주)은 산업용 및 의료용 가스, 유해가스 제거 및 폐수처리용 액상 소석회, 수산화마그네슘, 환경관련 설비 및 약품 등을 제조, 충전 및 판매하는 업체로 제조하거나 취급한 물질(산소, 질소, 알곤, 탄산가스, 생석회, 액상 소석회, 카바이드, 아세틸렌, 아세톤, DMF, 사염화탄소, 등) 중 천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월 2-3회 소주 반 병 정도씩 음주와 하루 0.5-1 갑 정도씩 흡연하였다. 채용건강진단과 이 후 일반건강진단에서도 모두 정상이었다. 2003년 4월 19일 이전부터 천식이 있어, 2003년 8월 27일부터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아 왔으며, 중증 천식 발작이 있기 2개월 전인 2005년 1월 17일 흉부방사선사진에서 폐기종 소견이 있었으므로, 이 당시 이미 천식의 특징인 가역적 단계를 지나 비가역적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야근 후 2005년 3월 14일 오전 호흡곤란으로 괴로워하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 도착 당시 호흡 및 심박동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지 13분 후 심박동이 돌아왔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이다.

4. 결론: 근로자 박○○는

- ① 2003년 4월 19일 이전에 천식이 발생하였다가,
- ② 경비 업무 중 천식 유발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없고,
- ③ 업무와 관련하여 천식을 악화시킬만한 요인도 없었으므로,

천식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